

“고교야구 최고봉 가리자” 무등기 14일 화려한 개막

■제17회 무등기 출전 23개팀 프로필

1994년 광주일보사가 고교야구 활성화를 위해 창설한 무등기가 17번째 열전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21일 까지 8일간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펼쳐지는 아마야구의 축제 무등기는 패기와 젊음이 격동하는 열정의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한국 야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야구 스타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17번째 무등기 우승팀을 향한 전국 23개 참가팀의 프로필과 전력을 살펴본다.

청소년대표 3명 포진 강력한 우승후보



광주제일고

시즌 첫 대회 황금사자기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국대회 24차례 우승에 빛나는 호남야구의 대별보. 좌완투수 유창식과 내야수 백세웅·백왕중 3명의 청소년 대표가 전면에 포진했다. 에이스 유창식과 언더 이정호로 이어지는 막강한 투수력과 정교함과 파괴력을 겸비한 타선, 탄탄한 내야진을 앞세워 무등기 우승에 도전한다. ▲대표=김병재 ▲감독=허세환 ▲선수=백세웅, 유창식, 박기철, 이정호, 서흥규, 백왕중, 허일, 박종호, 김요승, 임영섭, 이현동, 노유성, 이기범, 서동욱, 김준서, 이동건, 최재원, 장진혁, 박정섭, 전은석, 정경은, 송준희, 조현준, 송진혁, 서소광, 노지훈, 선진원, 이강은, 김병서, 박선호

포수 조용성, 투수 리드·강한 어깨 일품



휘문고

1907년 창단된 휘문고는 각종 전국대회를 석권하면서 야구 명문으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임찬규, 박성민으로 이어지는 투수진은 안정된 마운드를 자랑하며 포수 조용성의 투수리드와 강한 어깨는 일품이다. 쪽넓은 수비를 바탕으로 한 야수진은 무등기 불풍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 = 김선창 ▲감독 = 전형도 ▲선수 = 조용성, 임찬규, 박성민, 김준수, 박남진, 박상남, 윤현복, 이훈주, 박재영, 조기현, 박가람, 이정훈, 박희원, 박태원, 조응화, 조정찬, 박민우, 조원빈, 변성우, 강양규, 김성표, 정진영, 박병준, 윤정호, 정승빈, 홍다훈, 박성우, 박민수, 최은혁, 장민도

마운드·수비력 탄탄 필승 다저



동산고

청룡기 3연패에 빛나는 동산고는 높아진 마운드를 앞세워 무등기 주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나카 큰 커브와 140km의 직구를 보유한 우완 정봉과 박병우가 마운드 전면에 나선다. 김현석, 조상우의 투구와 배짱도 좋다. 마운드에 비해 타력이 약하지만 안정된 수비력으로 필승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표 = 김건수 ▲감독 = 김재문 ▲선수 = 김대우, 박병우, 권희민, 김현석, 최신식, 황용, 김승민, 문혁준, 박주현, 이진욱, 이국진, 이원희, 조상우, 신세진, 남궁훈, 최홍원, 김재현, 홍효로, 최종민, 김대형, 이병보, 최원근, 이경태, 양우석, 이국범, 김태민, 김광수, 고영준, 서상민

전국대회 8회 우승...부산야구 명문



부경고

1945년 개교와 함께 팀을 창단한 부경고는 전국대회 8회 우승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부산지역 고교야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우완 정봉과 홍성무와 좌완 황승현이 원투펀치를 이루며 유격수 강동수와 3루수 정호진이 내야를 굳게 지키고 있다. 김재유·심동민은 외야를 수성하고 있다. 특유의 강한 근성과 파괴력으로 무등기 파란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남경필 ▲감독=권두조 ▲선수=정호진, 심동민, 홍성무, 강동수, 김동준, 김재유, 김정윤, 김현기, 황승현, 이동현, 문성용, 박상운, 이정훈, 김석환, 안주형, 이종우, 김봉진, 김호민, 박석민, 손용석, 윤성민, 전대성, 황동원

투수진 보강 새로운 도약 준비



전주고

1977년 재창단되어 1979년 전국체전 우승을 시작으로 1985년 황금사자기 우승 등 꾸준한 전력을 유지해 왔으나 긴 침체를 보였다. 2006년 전국체전 우승을 시작으로 영광재현에 나섰다. 올 시즌 선수인원이 16명에 불과하다. 주장 강태욱을 주축으로 새로 보강된 강성민·김혁·김경수 투수진과 김광원·강태욱·김수산 클린업 트리오를 앞세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 = 백창기 ▲감독 = 최영삼 ▲선수 = 강태욱, 강성민, 김혁, 김경수, 김지원, 김재현, 김수산, 김찬승, 권오웅, 김광원, 이준현, 손수기, 문경원, 오경민, 유문근, 강남규

정교한 타격·안정된 수비 자랑



장승고

47년의 야구 역사를 자랑하는 장승고는 올 시즌 황금사자기 준결승에 머무른 아쉬움을 무등기 우승으로 풀겠다는 각오다. 145km의 강속구를 장착한 윤영삼과 좌완 정다환이 마운드를 지키고 윤경원·민원홍이 정교한 타격으로 타선을 이끈다. 안정된 수비와 짜임새 있는 팀워크로 우승을 노린다. ▲대표 = 백대현 ▲감독 = 유영준 ▲선수 = 윤영삼, 정다환, 최진용, 민태호, 서덕원, 박치현, 이경배, 송준석, 김훈, 유재협, 하병민, 장동혁, 김정호, 국정환, 조지훈, 이지혁, 김찬희, 성현기, 윤경원, 신민기, 황윤호, 채상현, 홍성복, 이재복, 정도원, 사영민, 민원홍, 이민호, 이동현, 원혁재

철벽수비·정신력 앞세워 정상 도전



진흥고

1973년 창단 이후 전국대회 7회 우승 11회 준우승을 거두며 호남야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고재환·양승철·우현규·김승환으로 이어지는 투수진이 마운드를 수성하고, 이태호·이주호·김도현 등이 정교한 타격과 빠른 발을 이용해 공격을 이끈다. 내야의 철벽수비와 정신력을 앞세워 무등기 정상에 도전한다. ▲대표=이종효 ▲감독=최재영 ▲선수=최수민, 고재환, 양승철, 엄석준, 이태호, 김도현, 이주호, 장민규, 우현규, 양현용, 김승환, 황정호, 김성욱, 박인규, 박성우, 이진호, 양구열, 조민성, 박정민, 정준하, 윤재영, 박진우, 김태을, 홍성은, 윤영찬, 신도혁, 이명진, 박상훈, 박현민, 김동화

끈끈한 팀워크 앞세워 선전 다짐



부산공고

선수층이 얇은 부산공고는 올 시즌에도 약체로 꼽히지만 끈끈한 팀워크를 앞세워 무등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슬러더를 유인구로 장착한 투수 박희석과 정교한 배팅을 자랑하는 내야수 김태환이 전면에 나선다. 빠른 발을 보유한 김태호, 부드러운 배팅과 함께 장타력까지 겸비한 포수 이상근, 파워 히터 김승혁 등이 팀의 주축선수로 무등기 활약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 = 박병국 ▲감독 = 신종세 ▲선수 = 김태호, 김태환, 박희석, 김승혁, 정준호, 이상근, 류덕화, 이지훈, 심재영, 방승준, 장준영, 최경민, 김우재, 박상진, 김태경, 이창민

클린업트리오 파워 타의추종 불허



성남고

안정된 수비력과 기본기에 충실한 플레이로 대회 다크호스를 노리고 있다. 노련한 좌완 황영덕과 언더 김주환이 버티는 높은 마운드와 정범수·허재용·김용덕으로 구성된 중심타선의 힘이 좋다. 김선균을 선두로 기동력으로 무장한 성남고는 투·타의 짜임새가 좋아 이번 대회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대표=유재동 ▲감독=임병정 ▲선수=황영덕, 진창욱, 허재용, 강중석, 정범수, 김용덕, 김선균, 안지훈, 박태원, 김덕주, 김주환, 김민준, 김동원, 김성중, 서예일, 권용우, 조성인, 박진태, 최민석, 최준혁, 양문석, 윤강혁, 윤여현, 이상훈, 최병희, 허규, 고귀환, 고대환, 김진규, 유재광

유니폼 교체 '제 2의 부흥기' 예고



천안북일고

1977년 창단된 북일고는 전국대회 10회 우승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야구 명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이정훈 감독 체제 아래 유니폼 교체를 감행하며 제 2의 부흥기에 도전하고 있다. 북일고에는 프로야구의 전설인 송진우의 아들 송우석과 조카 이영재가 각각 1루수와 투수로 활약하고 있다. ▲대표=신현주 ▲감독=이정훈 ▲선수=홍성갑, 송준준, 신준식, 오준혁, 이광훈, 이영재, 최형중, 박건주, 한덕고, 임규민, 윤승렬, 김찬근, 홍용환, 임성재, 송우석, 박상원, 이승우, 이근우, 김진진, 장대환, 김주현, 나동민, 김인태, 송병호, 김남현, 심명보, 윤형택, 고성우, 신승원, 정혁진

1·2학년 주축 패기로 무장 '8강 목표'



웅마고

올 시즌 1·2학년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올해 보다는 내년 시즌의 도약을 노리며 무등기 8강을 목표로 잡았다. 절묘한 코너워크를 과시하는 배준빈과 140km의 강속구를 뿌리는 무서운 심일성 윤광식 등 한층 더 안정된 투수력을 바탕으로 팀 분위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마운드에 비해 타선의 힘이 떨어지지만 발 빠른 타자 표영석과 찬스에 강한 박현욱 등을 앞세워 패기 넘치는 플레이를 다짐하고 있다. ▲대표=조규재 ▲감독=박동수 ▲선수=배준빈, 박동민, 박현욱, 윤광식, 김희철, 신도환, 이영준, 김영진, 표영석, 방효민, 차대환, 배건오, 김한솔, 심규도, 정명현

우완 박건우 직구 위력적 타자 압도



세광고

1954년 창설된 세광고는 2008년 인조잔디 구장 조성을 완료하는 등 야구전용 구장을 갖추고 있다. 강한 정신력을 앞세워 무등기 불풍을 준비하고 있다. 마운드에서는 우완 정봉과 박건우가 위력적이다. 박건우는 190cm의 큰 키에 내리꽂는 위력적인 직구로 타자들을 압도한다. 좌타자 이정현은 재치있는 타격과 빠른 발로 공격전면에 나선다. ▲대표=김병환 ▲감독=김용선 ▲선수=김정섭, 김태규, 권상용, 이민준, 윤정현, 강명석, 배병현, 박홍범, 이석현, 김태용, 이승재, 송성근, 김호환, 라민택, 채민식, 전병현, 김두영, 최승규, 이의중, 박건우, 이정현, 정영선, 김태철, 이대진, 이정현, 이선호

초고교급투수 최현진 등 마운드 최강



충암고

1970년 개교와 함께 탄생한 야구부는 2009년 황금사자기 우승 등 7회의 우승을 일구어냈다. 올 대통령배 4강에 오른 전력을 바탕으로 우승을 노리고 있다. 황금사자기에서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투수 최현진을 필두로 권태원·변진수로 이어지는 마운드도 굳건하다. 김지훈·유원식·류지혁으로 이어지는 타선도 막강하다. ▲대표=김창록 ▲감독=이영복 ▲선수=강병의, 권태원, 최현진, 조영욱, 변진수, 안창하, 윤재진, 최우준, 최주호, 정영환, 허진영, 이정호, 정호진, 유원식, 이하라, 황호식, 김지훈, 최규환, 박남권, 김동환, 류지혁, 조성진, 김태훈, 김경호, 장진일, 서문환, 조영재, 김승규, 문규현, 김병재

전국대회 경험 풍부한 전통의 강호



광주 동성고

1956년 창단한 야구부는 1977년 황금사자기 우승을 시작으로 20여 차례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전통의 강호다. 기동력의 테이를 세터진과 한방을 보유한 클린업 트리오가 공격을 이끌고 140km의 빠른 볼을 보유한 좌완 이영기 우완 문우람이 버티고 있는 마운드도 탄탄하다. 풍부한 전국대회 경험과 끈기있는 전력을 앞세워 무등기 4강 이상에 도전한다. ▲대표=이상선 ▲감독=신동수 ▲선수=김승보, 배동준, 이영기, 황승지, 강경하, 박건우, 이종우, 김유진, 문우람, 김민재, 김창권, 김원중, 신현호, 이상규, 문지서, 전세민, 김동범, 박상진, 조성진, 윤준식, 박성진, 박상도, 이형재, 박성훈, 이진우

필리핀서 동계훈련...재도약 노력



경동고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지만 최약체 탈출을 목표로 지난 겨울 필리핀 훈련에서 한달간의 훈련을 소화했다. 선수들의 경험이 부족하고 확실한 에이스가 없지만 사이드업 김성현이 날로 향상된 모습을 보이며 마운드에 힘을 더한다. 포수 이동근은 장타능력까지 겸비해 팀을 이끌고 있다. 무등기를 통해 재도약을 노린다. ▲대표=김종원 ▲감독=정기태 ▲선수=김민재, 김성현, 박동준, 곽동호, 김기홍, 신대원, 이영환, 김인명, 노정민, 이대근, 박영훈, 신성환, 안치연, 산세원, 김승환, 이종현, 송진환, 조대성, 조우준, 정찬호, 장윤석, 최지훈, 김태진, 정익재, 김효식, 이상우, 오영택, 이형주, 김우성, 김경식

전국 유일 군단위 팀 돌풍 예고



화성고

지난해 화랑기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저력을 과시했던 화성고가 더욱 강해진 전력으로 무등기 불풍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 유일한 군 단위 학교 야구부라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투·타의 짜임새와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했다. KIA 내야수 김선현의 친 동생인 김선현이 팀의 주장을 맡아 타선의 전면에 나선다. 청소년 대표 외야수 정진기의 장타력도 돋보인다. ▲대표=김규화 ▲감독=김동현 ▲선수=김선현, 김준모, 김태호, 이건우, 강세지, 홍건희, 이수빈, 심정보, 정진기, 박철현, 오경우, 임태환, 김민환, 이형범, 이원재, 이경훈, 이종하, 전병철, 신성훈, 구희진, 임창후, 고현욱

팀플레이 돋보이는 신흥 강호



안산공고

2000년 창단 이후 모교와 안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신흥 강호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큰 경기에 뛰어난 경험이 있는 선수가 적지만 짜임새 있는 팀플레이가 돋보인다. 마운드에서는 침착한 경기 운영능력의 김규대, 안정된 제구의 문순환, 배짱투의 김성재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주장 모상영의 정교한 타격과 발 빠른 강민우, 장타력이 돋보이는 염은호를 앞세운 집중력 있는 타선으로 무등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대표=김소환 ▲감독=이은승 ▲선수=문순환, 김규대, 강민우, 염은호, 박진우, 모상영, 김용희, 최준영, 홍창기, 오세환, 이혁진, 김성재, 김태진, 조한철, 성민국

올 대통령배 4강 사기충천



경기고

1905년 우리나라 최초로 야구팀을 창단하면서 한국야구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60년대 후반 해체됐던 팀이 1976년 부활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대통령배 4강에 오른 경기고는 한층 노련해진 투수 고지원, 마운드 전면에 내세웠다. 청소년 대표인 강진성의 파워도 주목할 만하다. ▲대표=이정곤 ▲감독=강길용 ▲선수=김상민, 윤수호, 고지원, 강철, 박지훈, 이동희, 조영준, 오석, 이정민, 박홍재, 주경호, 최준식, 이한수, 김세중, 박두현, 박승우, 김용현, 황필진, 정명우, 박동현, 강진성, 조재형, 안진근, 김재현, 오택준, 신용호, 강승남, 정창태, 이상호, 최선규, 박규환

수비·타격 업그레이드 '다크호스'



아탑고

1997년 창단이라는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적으로 명성을 알리고 있다. 신유원·김성민·손재광 등의 투수진과 함께 포수 정인식·김준혁이 막강 배터리를 이루고 있다. 안정된 수비력과 한층 더 강해진 타력을 바탕으로 한 끈끈한 팀워크로 무등기 다크호스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표=민병현 ▲감독=김성용 ▲선수=정인식, 손재광, 신유원, 김석규, 송경복, 문성우, 이지원, 박광열, 김성민, 김준혁, 장지환, 이형재, 정진철, 김영현, 강구성, 정지현, 이종민, 고동현, 문다성, 장지훈, 이진성, 송지훈, 박태환, 변만후, 김동진, 최진우, 김정환, 장민석, 남석진, 김의겸

주장 주다빈 등 폭발적 타격 기대



충흥고

2007년 창단한 안양 충흥고는 창단 3년 만에 정상적인 팀원을 구성하고 신흥 명문으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동계전지훈련을 통한 정신력과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운 팀플레이로 이름을 알리겠다는 각오다. 주장 주다빈을 중심으로 김용환·신대현·손호환의 폭발적인 타격이 돋보인다. 안정된 마운드 운영능력을 과시하는 성양민이 마운드를 수성하고 있다. ▲대표=원유원 ▲감독=김인식 ▲선수=주다빈, 이진규, 김의선, 신원섭, 성양민, 김윤재, 송재현, 정재호, 박석순, 손하림, 신대현, 조경원, 권기환, 김용환, 윤영하, 정세영, 최원호, 김효진, 민경호, 박우진, 손호영, 이상우, 정화용, 김홍경

전국 제패 꿈꾸는 강원야구 선두주자



설악고

최북단에서 전국 제패를 꿈꾸고 있다. 속초시의 지원 속에 2009년 인조잔디야구장을 건립해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원지역 야구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선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24명의 선수단을 꾸려 빛을 찾았다. 사이드업 김민우를 축으로 서지훈·방대환이 마운드를 지키고 있다. 집중력 있는 승부로 타선의 약세를 극복하겠다는 각오다. ▲대표=지급식 ▲감독=이광권 ▲선수=오인우, 김대환, 김민우, 김병석, 김범주, 김병근, 김병수, 김태현, 김태현, 김현우 박창욱, 방대환, 서지훈, 서대환, 최형욱, 심우중, 유근상, 윤성룡, 전찬일, 정대용, 정우혁, 조규연, 주수빈

강한 체력·철통 수비 돋보여



경북고

1920년 창단 후 전국대회에서 26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린 야구 명문. 2002년 대붕기 제패 이후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지만 올 시즌을 위해 혹독한 체력훈련을 소화했다. 안방 마님 박승무를 중심으로 투·타에서 고른 전력을 보이고 있다. 철통 수비를 바탕으로 무등기 불풍을 준비한다. ▲대표 = 안준호 ▲감독 = 강경길 ▲선수 = 이상하, 전형근, 신동민, 권혁준, 문재성, 류효영, 임기영, 김윤동, 백승준, 이호진, 박승우, 김지원, 김용배, 이상학, 박세민, 한동욱, 이근욱, 최원호, 정재민, 김명신, 홍성일, 권현규, 장영빈, 정철호, 조득원, 최재재, 장희정, 조준영, 안정현

마운드 든든 "2연패 지켜보라"



개성고

1895년 개교 이래 100여년 동안 간직해온 부산상업고등학교라는 교명을 최근 개성고등학교로 변경했다. 1923년 창단된 야구는 지난해 무등기 우승을 비롯해 전국대회에서 10여 차례 패권을 차지하는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2009 무등기 우승의 주역 좌완 김민식과 우완 박세준을 주축으로 한 든든한 마운드를 앞세워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대표 = 김승수 ▲감독 = 김상재 ▲선수 = 박세준, 손재원, 전병우, 강동우, 김민식, 양민호, 이두희, 정다훈, 김태완, 김현일, 노관현, 주하진, 하정민, 김민준, 박영수, 윤준서, 이호중, 김도근, 김영식, 심재민, 유상원, 조하늘